R-22. 치주질환으로 인한 예후 불량 치아의 분포

강영화*, 장문택, 김형섭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서론

치주치료의 목적은 health, function, comfort 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치의 수명을 최대화하는 것이다. 치주치료가 이러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치아상실의 주요 책임은 초진시 hopeless prognosis를 가지는 치아인 것으로 보여진다. 이러한 hopeless teeth의 비율은 전체의 4.2%, 5%정도이지만 치아상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예후가 나쁜 치아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. 이번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의 결과로 생기는 hopeless teeth의 분포를 알아보고, biological system의 일반적인 특징인 대칭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

2000.1월부터 2001.7월까지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1757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hopeless teeth를 가지고 있고 치주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Hopeless teeth는 치주원인으로 고려되어지는 상태로 다음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로 선택하였다.

· 75%이상의 골소실
· mobility(III)
· probing depth(8mm이상-한 치아의 6 면에서 측정한 후 2부위 이상이 포함될 때)

실험측 치아로 선택된 반대측 치아를 대조군으로 정하고 각각의 probing depth(PD), mobility(MO), 골소실의 방사선학적 평가(RA)를 기록하였으며 양측이 모두 hopeless에 해당될 경우 좀 더 심한 경우를 실험측으로 하였다. 선택된 hopeless teeth는 총 357 쌍이었다.

통계학적인 분석은 paired t-test를 사용하였다.

결과 및 토의

Hopeless teeth의 발생률은 356쌍 중 상악 대구치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, 하악제2대구치 상악제2소구치 순이었으며 발생빈도가 적은 것은 상악견치, 하악견치, 하악제1소구치 순이었다.

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한 hopeless teeth의 분포 중 특징적인 것은 치주 질환의 분포를 보고한 이전 연구들과 같은 대칭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. 이것은 치주질환이 어느 정도까지는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, 그 치아의 국소적인 인자가 존재하는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. 양측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정도일지라도 임상적으로는 아주 작을 수 있다. 그러나 life-time을 고려할 때 작은 임상적 차이가 치열의 수명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.